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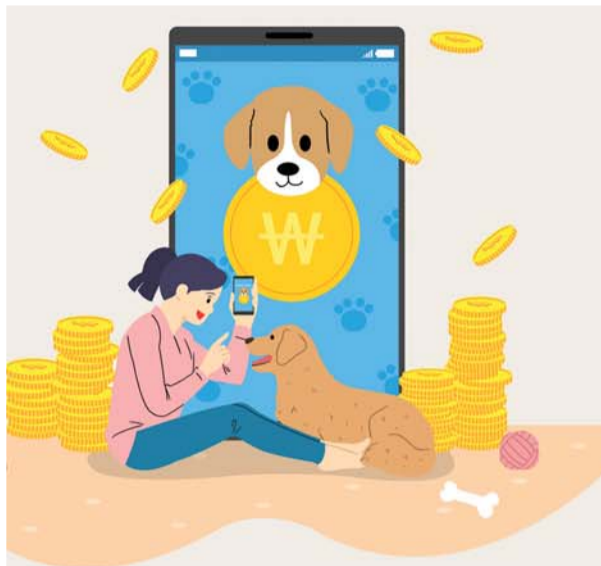
‘마이 펫’을 부탁해... 보험부터 신탁까지 평생 동반금융

펫코노미 시대

펫금융 활기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28% 시장규모 3년새 60% 성장한 5.8조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최대보상 70%, 수술비 200만원
한화손해보험 ‘펫플러스’
만 10세까지, 입·통원 15만원 한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비문’으로 반려견 구분 시스템 도입



펫보험 보험사 비교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DB손해보험 아이러브	한화손해보험 펫플러스	삼성화재 애니펫
가입 가능연령	1세~만8세	1개월~만8세	3개월~만10세	60일~만6세1개월
갱신주기	3년	3년	1년	1년·2년
탈구질환	보장(술개골면책기간1년)	보장(특약선택시)	보장(플랜선택시)	보장(50%)1회플랜선택시
구강내질환	보장(술개골면책기간1년)	보장(특약선택시)	보장(플랜선택시)	X
피부질환	보장(술개골면책기간1년)	보장(특약선택시)	보장(플랜선택시)	보장 1회플랜선택시
치료비 보상비율	50%·70%	50%·70%	50%·70%	70%
가입대상	개·고양이	개	개	개
회당 보상한도	수술비 200만원 입통원 15만원	수술비 100·150만원 입통원 10만원	수술비 150만원 입통원 15만원	수술비 100·150만원 입통원 10·15만원
보상회수	보상한도 내 횟수 제한없음	수술 2회, 입통원 각각20일	수술 2회, 입통원 각각20일	수술 2회, 입통원 한도내 제한없음

자료/각사

‘개 팔자가 상팔자’. 일이 바쁘고 고될 때 아무 일도 안하고 돌아다니는 개의 삶이 자신들의 삶보다 낫다는 뜻으로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의미로 ‘개 팔자가 상팔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각종 질병에 대비한 ‘보험’부터 집사가 세상을 떠나도 재산이 상속돼 안정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신탁’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7.9%에 달한다. 1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조8900억원으로 3년 전인 2015년(1조8000억원)보다 60.5% 성장했다. 연구소는 이 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5조8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반려동물 치료비엔 ‘펫보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고,

양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고령 반려동물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려동물보고서를 보면 반려견의 연령은 1~3살이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4~5살 20%, 6~7살 10.5%, 8~9살 7.3%, 10살 이상 10.6%이다.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는 91일부터 만 8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치료비 보상비율은 최대 70%로, 탈구·구강·피부 질환 등을 보장한다. 회당 보상한도는 수술비 200만원, 입·통원 15만원이다. 한도 내에서 보상회수는 제한 없다.

한화손해보험의 ‘펫플러스’는 3개월에서 만 10세까지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치료비 보상비율은 최대 70%까지이며, 탈구·구강·피부 질환은 특약 선택 시 가능하다. 수술비 150만원, 입·통원 1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상회수는 수술 2회, 입·통원은 각각 20일로 제한

된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개의 코모양인 비문으로 반려견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폰만으로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반려견의 개체 확인이 어려운 탓에 까다로웠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주인 떠나도...반려동물을 부탁해 ‘펫신탁’**

반려동물 신탁은 주인(신탁자)이 사망하거나 병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 줄 새로운 주인(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물론 ‘새로운 주인’은 기존 주인이 생전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반려동물 신탁은 미국과 일본에서 활성화 되었다. 미국은 유언형태로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신탁의 권리능력이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반려인이 자신의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겠

다는 유언장 등을 작성해도 현행 민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신탁비용으로 반려동물의 생존기간을 10년으로 계산했을 때 사료비, 병원비, 장례비, 매장비용 등을 포함해 200만~300만원 정도로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한다.

새로운 주인이 상황 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동물보호 시설에 양육을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는 KB국민은행의 ‘KB펫코노미신탁’과 ‘KB금지옥엽신탁’이 있다. ‘KB펫코노미신탁’은 주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만났을 때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KB펫코노미신탁’은 반려동물 용품 할인, 행사·카페이용, 목욕탕·해수욕장이 용 시에도 금융상품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금지옥엽신탁’은 조부모나 부모, 삼촌 등의 위탁자가 사망 후 손주나 자녀, 조카로 새로운 주인이 지정되면

매년 또는 매월 용돈을 지급하거나 대학입학, 자동차구입, 결혼 자금 등의 특정 이벤트에 신탁한 자금을 지급한다.

◆ **돈 모으고 할인 받고... ‘펫 예·적금’**
이 밖에도 시중은행들도 반려동물 예·적금을 출시하고, 반려동물의 용품부터 병원비, 장례비 등을 할인해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위드펫 적금’은 반려동물 사진을 5장 이상 등록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제휴 동물병원, 쇼펄 등에서 공유하는 QR코드를 등록하거나 동물등록증을 제시하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위해 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 금리로 해지가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의 ‘참 좋은 내 사랑 펫카드’는 전국 동물병원과 카페, 호텔, 훈련소 등 반려동물 업종으로 등록된 1만2000여 개 가맹점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5% 할인이 적용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마트, 140억 규모 ‘겨울패션 할인행사’

의류·잡화 등 2주간 최대 70% 할인

갑작스런 한파의 기습에 이마트가 겨울 패션 클리어런스 행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마트는 오는 2일부터 2주간 140억 규모의 ‘데이즈/브랜드의류 겨울패션 할인행사’를 연다.

의류, 이너웨어, 잡화 등 겨울 패션 아이템 전부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할인율을 대폭 높여 데이즈는 최대 50%, 브랜드의류는 최대 70% 할인해 판매한다. 데이즈의 대표 행사상품으로, ‘남성 마블 맨투맨’ 5종을 1만5900원에, 보온성을 높인 ‘남/여 본딩팬츠’ 5종을 각각 1만9900원/1만5900원에, 기모/보아 소재의 ‘유아동 겨울 맨투맨’ 20여종을 9900원/1만2900원에 판매한다.

또한, ‘남성 구스다운 베스트/점퍼’ 10여종을 50% 할인한 2만4950원~3만9950원에, ‘남/여 스포츠 소프트 웨어 티셔츠’를 1만5900원에 준비했다.

이너웨어와 겨울 잡화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겨울 라운지웨어, 성인/아동 내복, 데이즈 히트필의 전품목을 대상으로 2개 이상 구매시 30% 할인한다.

이밖에도, 브랜드 여성 아우터를 최대 70% 할인하며, 허쉬파피 등 여성 겨울부츠 전품목을 최대 30% 할인한다.



고객이 이마트 데이즈 매장에서 할인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마트

또한, 새해 등산족을 위해 콜핑 티셔츠와 팬츠를 균일가 2만9000원/3만90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가 이같은 대규모 클리어런스 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평년보다 따뜻한 12월 날씨 탓에 패션 매출이 주춤했기 때문이다.

올해 12월(1일~30일) 평균기온은 1.7도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영상권으로 진입했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12월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와 올해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두툼한 점퍼나 롱패딩 등 금액대가 높은 겨울 의류 판매가 부진했다. 하지만 지난 31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영하의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포근했던 12월 날씨에 겨울 의류 구입을 미뤘던 소비자들의 발길이 돌아올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경자년, 똑똑한 출산 준비하세요”

출산강좌 기획, 캐릭터 출산선물 등 이달 쥐띠 아기들 위한 마케팅 다채

‘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을 맞아 롯데백화점은 1월 한 달간 쥐띠해에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인다.

1월은 백화점 출산·유아용품 매출이 연중 가장 높은 달로, 롯데백화점은 매년 1월, 그 해의 12지신 띠에 맞는 출산·유아용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본점, 노원점, 건대스타시티점, 김포공항점, 수원점 등 주요 점포에서는 쥐띠 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가 들 수 있는 출산 관련 문화센터 강좌를 기획했다. 1월 본점 문화센터에서는 ‘오가니 쥐띠 친환경 아기용품 만들기’를, 노원점에서는 ‘2020년 쥐띠 오가니



롯데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서 고객이 2020년 생 출산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쇼핑

코튼’을, 건대스타시티점은 ‘2020 쥐띠 친환경 장난감, 침구’ 강좌를 진행한다. 또한, 김포공항점에서는 ‘순산을 위한 임신부 요가’를, 평촌점에서는 ‘쾌통분만 임신부 요가’ 강좌가 열린다.

쥐를 형상화한 캐릭터 출산선물도 선보인다. 유기농 유아복 전문 브랜드 ‘오

가닉 맘’에서는 쥐 캐릭터가 그려진 베넷 저고리, 상하복, 손싸개로 구성된 ‘쥐띠 탄생 기념 선물 세트’를 6만 6000원에, 배넷 가운, 속싸개, 손싸개, 발싸개의 4종으로 구성된 ‘쥐띠 해 출산 세트’를 4만 3800원에 판매한다. 유아복 브랜드 ‘에프와’에서는 ‘쥐띠해 기념 출산 베딩용품 세트’를 31만 6800원에, ‘블루독 베이비’ 브랜드에서는 ‘마우스 베넷 세트’를 6만 5000원에 선보인다.

유아 전문 주얼리 브랜드 ‘폼에스타’에서는 ‘12지신 쥐띠 메모리얼 각인 실버 미야방지팔찌’를 6만 5천원에, ‘12지신 쥐띠 메모리얼 각인 잼스톤 볼 실버 미야방지 목걸이’를 13만원에, ‘글램 12지신 쥐띠 메모리얼 실버 목걸이’를 11만 9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커피 ‘해피 치즈 화이트모카’ 등 선보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해피 치즈 화이트모카’를 비롯한 새해 음료 3종과 푸드 6종, MD상품 25종을 전국 매장에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해피 치즈 화이트모카’는 부드러운 풍미와 쫄쫄한 식감이 살아있는 크림 치즈 휘핑크림과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이 어우러진 음료로, 단짠 단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

이다. 특히 흰 쥐의 해를 상징하는 음료답게 쥐가 좋아하는 치즈와 흰색의 화이트 초콜릿을 활용한 것은 물론, 이름처럼 스타벅스를 찾는 모든 고객이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